

# 한솔제지, 지주회사 체제 전환

## 자본금 1388억원으로 지주회사 전환 ... 9월1일 분할·합병

한솔제지와 한솔CSN은 4월8일 이사회를 열고 각 회사를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한 뒤 투자회사 사이의 합병을 통해 지주회사 체제(가칭 한솔홀딩스)로 전환하기로 결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솔의 지배구조는 한솔CSN, 한솔제지, 한솔EME, 한솔CSN의 순환출자 구조에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3단계의 구조로 바뀐다.

한솔그룹은 한솔CSN이 한솔제지 지분의 8.7%, 한솔제지는 한솔EME 지분의 19.0%, 한솔EME는 한솔CSN 지분의 13.9%를 각각 보유해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를 이루게 된다.

한솔제지와 한솔CSN은 7월30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분할·합병승인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며, 한솔홀딩스는 한솔제지와 한솔CSN의 투자부분이 합병해 자본금 1388억원의 지주회사로 전환된다.

한솔홀딩스는 자회사 사업관리와 투자사업, 브랜드·상표권 관리 등 일반적인 지주회사의 역할을 맡는다.

한솔제지는 기존의 인쇄용지, 산업용지, 특수지 등 각종 지류 제조업을 맡고 한솔CSN은 물류사업을 영위하게 된다.

분할·합병기일은 9월1일, 한솔홀딩스의 분할·합병 변경 상장과 한솔제지 및 한솔CSN의 분할 재상장 예정일은 9월27일이다.

한솔은 지주회사 전환에 대해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정부 정책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경영 효율성 증대를 통한 기업가치 상승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4/09>